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⑥ blog.naver.com/cityansan
① facebook.com/ansancity3
① twitter.com/ansancityhall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0월 26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10. 26



2 착한경제 꽃피운 안산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집들이

4 단원구의 경제가 바뀐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선부광장

5 청년이 웃으면 안산이 싱긋
청년 창업공간 '청년인큐베이팅'
24시간

6 가을은 맛있다!
다문화특구 원곡동에서
만나는 세계음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월피동 확장 이전

협동과 연대, 신뢰의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기대



센터장 최현수

이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최현수 센터장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 하겠다” 의지 밝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0월 21일 월피동 광덕시장 3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안산시는 2012년 10월부터 시청 본관 4층에 사무실을 열고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을 벌여왔지만 공간이 비좁아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복합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도비 1억 9,30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2,500만 원을 합쳐 광덕시장 3층 빈 상가 1,022㎡를 임차해 센터를 조성했다. 공간은 사무실, 사회적 기업 개별 사무실 6실, 공동사무실 3실, 교육장, 세미나실, 휴게실, 입주기업 편의시설, 식당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무공간이 필요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6곳도 공모를 통해 센터 협동화단지에 등지를 틀었다.

센터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공간으로도 자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현수 센터장은 “안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

터는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의 창업을 돕고,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과 컨설팅, 사회적 경제 교육 활동,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창업 초기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자립 기반을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대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밝고 이롭게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사회적 경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했다.

안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27곳이 있다. 이중 15곳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고 12곳은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또 8곳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15곳의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포함해 120곳의 협동조합이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5곳이 있다.

사회적 경제란?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

‘사회적 경제’란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주)미래도시농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곤충사육과 분양, 교육, 곤충체험장을 운영한다.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굼벵이 등 사육 시설을 갖춘 곤충생태 체험장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이견희 대표는 “곤충산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까지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가 예상되고 산업곤충의 이해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가능하다.”며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10회 과정 곤충체험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에 입문해 곤충산업으로 인생2막을 준비하자고 했다.



READ US는

기부 받은 도서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취약 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독서·진로지도 등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청년기업이다. 안용재 대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품보다는 교육이라고 느껴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했다. 리더스의 당장의 목표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좀 더 찾아내서 그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양지돌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함께 만든 기업이다. 요양보호사들이 병원 간병일과 방문요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양지돌봄은 법인으로 출발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했다. 요양보호사 31명과 사무직원 4명이 조합원으로서 1인 2구좌 10만원 씩 출자했다. 조합원 모두가 경영과 사업진행에 함께한다. 곽말라 사무국장은 양지돌봄은 “같이 경영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이며 가족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생각이드는 기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로 2012년 12월 환경단체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출범했다. 현재 615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앙도서관 옥상에 햇빛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2015년 12월에는 연간 38만kWh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와~스타디움 주차장 2천㎡에 설치했다. 김희나 사무국장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보다 더 많은 발전소를 세워 안산시가 청정에너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바다향기는

대부도 포도를 활용해 초콜릿과 고추장을 제조, 판매한다. 2013년 12월 제이엔이라는 초콜릿 제조회사로 출발해 현재 직원 5명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처음에는 초콜릿 단일품목으로 시작했지만 창업 3년이 다 된 지금은 대부도 바다향기를 담은 ‘바다향기대부포도고추장’과 한 끼 식사대용이 되는 ‘초코에너지바’, ‘초콜릿 잼’으로 품목이 늘었다. 바다향기는 먹거리 개발 생산 외에도 자사만의 고유한 제조법을 활용해 초콜릿과 포도고추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공청회 개최

선부광장로에 도입, 참석자 70% 찬성



안산시는 지난 10월 11일 안산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통합 선부광장 조성을 위한 회전교차로 도입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소사·원시·북선전철 개통 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선부광장을 통과하는 삼일로를 폐쇄하고 선부 광장로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선부 다이아몬드 광장을 활성화하자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추진해왔다.

송지성 교수(한양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광장의 다양한 활용’이란 주제로 “숲의 도시 안산에 맞게 소통·화합·그린(green)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환경·행복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라며 세계 각국의 광장들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설명했다. ‘역세권광장 교통개선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한 하희동 상무(천마기술단)는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회전교차로 도입이 가능하고 회전교차로 도입을 통하여 현재보다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회전교차로 도입을 찬성했으며, 위치는 상가 없는 썬큰 광장에 45명, 출입구만 있는 평면광장에 39명이 선택하며 의견을 보였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으로 교통체계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및 주민참여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 장기계획으로 수립 하겠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58)

김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기자 _ hanmarus@naver.com

재건축 현안 직접 듣는다

‘찾아가는 재건축조합 간담회’ 하반기에도 시행



1986년 안산시 설립 당시 지어졌던 주택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새로운 경향에 맞춰 높고 넓게 재 정비 됐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안산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과의 현장 간담회를 마련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택 정비사업의 주요 현안과 갈등 사항을 함께 풀어나가는 ‘찾아가는 재건축조합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재건축 조합 18개소와 추진위원회 5개소를 주택 재건축 담당 부서인 시 주택과 담당 직원 6명이 방문한다. 상반기에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3개 조합을 담당부서 직원이 방문했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들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에서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한 10여건·공사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시가 중재해주길 기대하는 것과,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필요사무의 빠른 처리 당

부, 기반시설관련 정비기금 보조금 상향 요구 등이 시의 조기 해결방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재건축조합 간담회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현안 해결 외에도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 제시로 민원 발생을 줄여주는 좋은 점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하도급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와 인력 우선고용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안산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3구역의 명단이다.

중앙주공1·2단지, 성포주공3단지, 군자주공5·6·7단지, 고잔연립1단지, 운곡연립1·2·3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초지연립1단지, 선부동2·3구역, 건건동1구역, 인정프린스아파트, 산호연립, 팔곡일동1구역, 중앙주공6단지, 중앙주공5단지1·2구역, 고잔연립8구역

☎ 문의 : 안산시 주택과(031-481-2909)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작가와 소비자가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글림’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① 글림(아비엔토)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글림(아비엔토)’

‘글림’은 일러스트적인 디자인을 벗어나 우리의 손글씨(캘리그래피)와 그림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자 창업한 팀이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요섭 대표(28세)와 동양학과 전공 캘리그래퍼 박재은 대표(28세)가 공동 창업한 ‘글림’은 2015년 6월, ‘아비엔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2평 남짓 되는 비즈니스사무실에서 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며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던 ‘글림’은 작년 10월에 청년큐브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신청절차를 거쳐 12월에 청년큐브 예대캠프에 입주하게 되었다.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 앞에 나타난 청년큐브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명함과 나의 사업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로고,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지닌 무드등(취침등)을 제작하고 있다.

도전과 기회 그리고 변화

이요섭 대표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미미한 수입에 비하면 현재의 매출은 기대 이상”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박 대표와 둘이 함께 잘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니 디자인, 그림 등에 대한 아이디어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템으로 손글씨와 손그림에 주목했다. 창업 초기에는 주문제작 형식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캘리그래피로 액자를 만들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시간에 비해 수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었고, 제작업체 등과 협업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판교밸리 등 타 도시의 창업지원 방식에 대한 갈망이 높아갈 무렵 안산시 청년큐브를 만났다고 했다. 큐브에 입주한 후 다양한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SNS로 제품을 소개하다보니 협업을 제안해오는 업체도 생겼다.

‘함께’라는 즐거운 시너지

‘수고했어 오늘도’, ‘응원할게 내일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메시지카드를 교환할 수 있게 제작된 캘리그래피 무드등, 별자리 무드등, 사진 캘리그래피 무드등은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월평균 300~400개 판매되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최근 웰빙과 웰메이드로 소비트렌드가 바뀌면서 싼 가격의 평범한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예쁘고 잘 만들어진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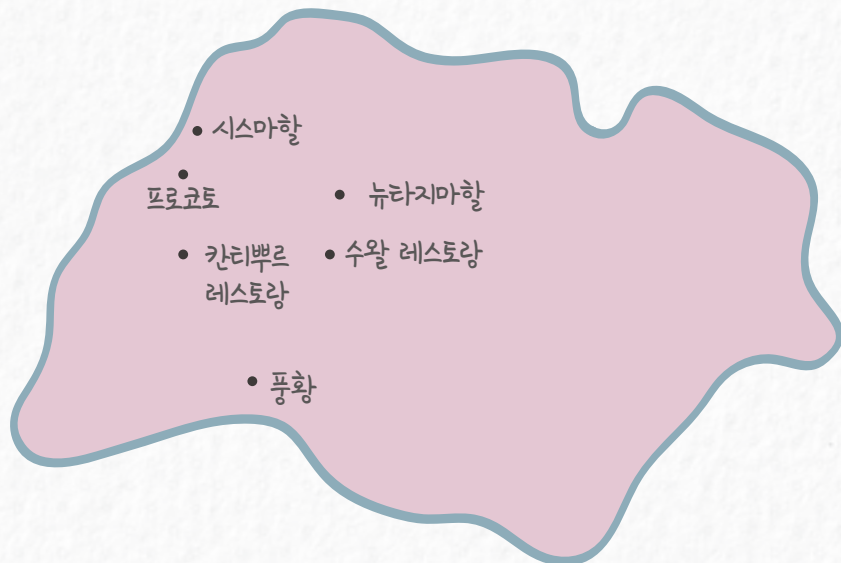
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점에 집중한 결과다. 생일선물로 주고받기 좋은 별자리 무드등도 인기가 많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게 전기선을 없애고 보조배터리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자를 만들었다. 젊은 감각의 심플한 디자인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크지만 창업은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 직장인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쇼핑몰 운영과 홍보, 세무 회계 등 사업전반에 대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뒤지며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으며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협력하면서 상생할 것”이라며 제품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좋은 추억이나 감동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어른이 되어가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괜찮아 잘 될거야”

원곡동에서 만나는 울긋불긋 세계음식

가을은 맛있다!



풍성한 계절인 가을에는 ‘먹는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의 입맛은 가을 하늘에 뜬 구름 모양처럼 다양하다.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열정도 식을 줄 모른다. 멀리 이태원에 갈 필요 없이

원곡동 ‘다문화 음식 거리’에는 찬바람에 움츠러들기 시작한 우리 몸 안에 온기를 불어 넣어 줄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즐비하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등의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약 87곳이나 성업 중이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맛을 찾는 이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식당들을 찾아 나섰다.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프로코토(인도네시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6

전화번호 070.4222.6032 | 영업시간 14:00~20:00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여기에서 따뜻함과 편안한 마음을 느꼈으면 해요.” 친절과 배려를 중요시하는 이 집의 대표 음식인 **미아얌**은 닭고기로 육수를 내어 매콤한 고추소스를 곁들여 먹는 국수이다. 닭갈국수와 같은 육수베이스에 인도네시아의 진하면서도 매콤하고 독특한 소스가 더해져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감칠맛이 돈다. “문화가 다른 식당에서 요리를 먹는다는 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는 프로코토. 이 집에서는 존중과 배려의 미덕을 맛볼 수 있다.



칸티뿌르 레스토랑(인도/네팔)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 28

전화번호 031.493.9563 | 영업시간 11:00~23:00

“인도나 네팔이 고향인 분들이 오시면 현지에서 공수해온 향신료로 최대한 본토와 가까운 맛을 내고, 한국 분들이 오시면 오랜 연구 끝에 찾아 낸 비율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대접하려 노력하죠.”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까지 맞춰주는 이 집의 대표 요리는 **탄두르치킨과 커리, 난**으로 구성된 코스요리이다. 칸티뿌르에서는 버터를 발라 고소한 풍미가 담긴 치킨,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탄두르 치킨, 담백하고 쫄깃한 난, 진하고 걸쭉한 인도식의 커리, 상큼하고 달콤한 라씨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시스마할(인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34, 2층
전화번호 031.508.1104 | 영업시간 10:00~23:00(연중무휴)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내륙국가 네팔과 이웃나라 인도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스마할의 인기메뉴는 커리와 난, 밥을 곁들여 먹는 **탈리세트**와 **탄두르치킨**이다. 탄두르(tandoor)는 향신료나 요거트에 절인 치킨이나 케밥 등을 구워내던 전통적인 흙화덕을 말하는데, 탄두르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탄두르치킨이라 부른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우리나라의 김치 같은 밀반찬 어찌라도 매콤하게 입맛에 잘 맞는다. 강원도 삼척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귀화까지 한 네팔 사장님의 푸근한 인상과 이국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풍황(베트남)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1길 3, 1층 101호
전화번호 031.492.4366 | 영업시간 9:00~23:00(주말에는 더 늦게까지)

“한국인 손님들도 한 번 오면 꼭 다시 오더라고요.” 단골이 많다는 이 집의 **쌀국수**는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도 느끼하지 않고, 야채는 추가해서 더 넣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집은 면조차도 베트남에서 오는, 쌀 90%이상 함유된 면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볶음밥**과 **월남햄버거**도 한국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 손님들에게 한국에선 구하기 힘든 인형을 선물로 주시는데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귀여운 커플 한 쌍이다.



수왈 레스토랑(태국)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8, 4층
전화번호 031.494.0338 | 영업시간 10:00~22:00(연중무휴)

10년 넘게 운영된 수왈 레스토랑은 다문화거리를 찾는 관광객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곳이지만 건물의 4층에 위치한데다 간판도 작아 의외로 찾기가 쉽지 않다. 태국요리는 더운 나라 특유의 강한 향과 시큼한 신맛, 툇 쏘는 매콤함이 특징이다. 한 번쯤 들어 보았을 **똥양궁**의 참맛을 수왈 레스토랑에서 느낄 수 있다. 파파야를 채 쳐서 마른새우, 고추, 남빠 등을 뺀아서 만드는 **쌈땀**과 **각종 쌀국수**, **다양한 볶음밥**도 인기가 많다. 강한 향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새우, 게살, 고기 등을 곁들인 볶음밥부터 먹어볼 것을 권한다. “태국스타일이 궁금하다면 꼭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라는 사장님의 서툰 한국말이 정감 있다.



뉴타지마할(파키스탄, 인도, 네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1길 49
전화번호 031.492.7861 | 영업시간 10:00~22:00

“우리만의 특별한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만 맛볼 수 있어요.” 이 집은 인도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재료로 만드는 특제 소스가 있다고 한다. 재료도 비법도 비밀이지만, 향이 전혀 과하지 않아 가족단위의 한국 손님들도 자주 이 집을 찾는다. 보통 다른 레스토랑은 재고관리가 어려워 냉동식품을 사용하지만 이 집은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요리한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젊은 사람들도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이곳은 **치킨카레**와 **양고기카레**가 유명인데, 특히 치킨카레는 다녀 온 사람들이 꼭 추천하는 메뉴 중 하나다.

흥물에서 명물로! 폐 놀이터의 재탄생

와동, 고잔1동 30개 폐쇄 놀이터를 커뮤니티 거점으로 리모델링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쉼터 같은 작은 숲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동과 고잔1동에 만들어진 ‘공동체의 숲’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 머물러 더 특별한 곳이다. 오랜만에 평상에 누워 꽃과 나무, 파란 하늘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동네이웃과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와동과 고잔1동의 오래된 빌라가 밀집한 이 지역은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폐쇄된 놀이터가 많은 곳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150세대 이하의 놀이터를 폐쇄해 버리면서 방치된 공간이다. 노란색 안전띠로 대충 막아놓은 곳에는 여기저기 우레탄이 들떠 있고, 쓰레기가 쌓이면서 동네 흉물스런 사각지대가 됐다.

놀이터가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다. 안산시 희망마을 사업추진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쇄됐던 30개 놀이터를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만드는 과정 자체도 특별했다. 각 단지별로 ‘주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용역업체와 여러 번 만나며 디자인을 협의했다. 주민들 의견이 하나하나 반영된 공간은 거창한 시설은 없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마을정원 느낌으로 탄생했다. 아기자기한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는 벤치와 정자, 데크 등이 설치돼 주변과 잘 어우러져 있다. 또 다른 곳에는 운동기구와 간단한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어른신이 동네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쌔치공원과 놀이터 형식으로 조성된 공동체의 숲은 올 상반기에 15개소가 준공됐고, 현재 15개소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의 숲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숲 바닥과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야생화를 식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지역주민과 KT&G 상상 Univ 대학생 봉사단, 만화작가와 디자이너 등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희망마을, 공동체의 숲 마을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가 더 유쾌해졌다. 주사위 놀이나 사방치기 등 놀이터 바닥에 그려진 재미있는 그림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른들은 어릴 적 놀던 추억을 되살려볼 수도 있고,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다.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손에 페인트를 묻히며 그린 그림이라 더 애착이 가고 정이 가기도 한다. 공동체의 숲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들이 계속 진행된다. 숲과 놀이가 결합된 주민소통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며 만들어가게 된다. 엄마기획단은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어른신들의 쉼 문화 만들기를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공연도 기획한다. 지난 9월에는 엄마기획단과 주민동아리 ‘역사야 나랑 놀자’가 중심이 돼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축제를 꾸미기도 했다. 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또 다른 숲’이라고 말한다. “와동과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공동체의 숲이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들르고 싶고 모이고 싶은, 마을의 작은 숲이 됐으면 좋겠다. 정감 가는 공간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중앙동에서 **앙동파티** 활짝

안산 청년예술인들이 만드는 축제 스케치



10월 15일, 중앙동 대동서적 맞은편 주차장에서 안산 청년예술의 축제 ‘앙동파티’가 열렸다. 앙동은 젊은이들이 중앙동을 줄여 부르는 애칭이다. 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앙동파티’는 중앙동을 안산 청년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거리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80여 명의 젊은 예술인 15개 팀은 판소리,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음악,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을 축제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여느 주말이라면 자동차로 가득 차 있었을 공영주차장이 녹색 화초가 있는 그래픽 포스터 전시공간과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회색의 아스팔트를 녹색의 심터로 재구성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가드닝 전시프로젝트 ‘도시숲’은 도심 속 작은 휴식공간이 되었다.

오후 3시부터 판소리보존회와 풍물마당 터주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극단 송곳, 영국단 잡동사니, 극단 동네풍경과 결판의 공연이 이어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소주를 마시며 푸념을 하는 30세 청년의 이야기, 식당 서빙과 편의점 알바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자취준’의 꿈을 다룬 마임극은 아픈 현실 속 위트와 비틀기로 관객에게 공감과 위로를, 희망을 전한다. 짧지만 강렬한 좀비들의 퍼포먼스를 마주한 관객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한훈식노트와 윤판판의 파워풀한 음악공연은 토요일 저녁 중앙동을 뜨겁게 달구었다.

오랫동안 공연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 생각지 못했던 축제가 열려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간다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빠져들었네요. 모처럼 머릿속이 상쾌해졌습니다.”라며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안산문화재단 오미현 과장은 “앙동파티는 지난 2년간 안산문화재단의 기획사업인 ‘안산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사업’의 결실을 맺는 축제의 장으로 안산에 정착하면서 ‘예술’을 매개로 만난 젊은 예술인들이 지역에 작은 예술생태계를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031-481-4047)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n@hanmail.net

경기도 거장들의 예술세계가 한 자리에

경기도미술관 10주년 기념전 ‘기전본색: 거장의 예술을 찾아서’



경기도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의 예술작품들이 한 곳에 모인다. ‘기전본색(畿甸本色): 거장의 예술을 찾아서’는 도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지금까지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10인의 현역 원로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현재 66세에서 83세에 이르는 작가들의 초기·중기·후기 작품을 시대적 특징을 따라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어 더 흥미롭다. 김광우, 김용철, 김인순, 민정기, 박관욱, 방두영, 손장섭, 오용길, 정문규, 한영섭 작가가 참여했다.

1960~1970년대 여성누드 ‘EVE’ 시리즈로 화단을 놀라게 한 정문규 작가는 1992년 말기 암 선고를 받고 기적처럼 새 생명을 얻은 후, 1995년 안산으로 이주해 꽃과 나무 들꽃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정 작가의 근작들은 살아있는 것들의 생생함이 캔버스 밖으로까지 전해진다. 김광우 작

가는 돌, 나무 등 천연의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 독특한 추상조각을, 박관욱 작가는 황동, 아연, 벽돌, 녹슨 철판, 색연필 가루 등 방대한 재료를 실험하며 자유롭고 위트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완성된 작품을 재생·재조합해 탄생시킨 작품들은 감성적이고 위트 있는 제목과 어우러져, 마치 ‘편곡된 음악’을 보는 것 같다. 전시 외에도 작가들과 만나 작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한국 현대미술 특강’ 시간이 마련된다. 또, 다양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기전(畿甸)은 조선시대에 경기도 일대를 이르던 말이다.

- 전시기간 2016년 12월 4일(일)까지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문의 : 경기도 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중학생이 만나는 직업세계

신길중, 실제 직무체험 나서 주목

자유학기제를 맞아 안산의 중학교들이 분주하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진로 탐색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 참여형의 교육과정이다. 신길중학교는 단순한 견학 형태를 벗어나 실제 직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 멘토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신길중학교의 학생들과 인솔학부모는 직업 현장 체험을 위해 미술심리상담연구소를 찾았다. 이날의 체험은 미술심리상담사의 대화 기법, 자신의 속마음과 겉모습을 표현하는 페르조나 가면 만들기, 직접 상담자가 되어 집단 이끄는 모의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체험에 참여한 김해솔, 송지민(신길중1)학생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직업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 신진영(신길중1)학생은 “대화기법을 배우고 나니, 친구들과 고민 상담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솔 학부모 윤정훈 씨(신길동, 41세)는 “마음을 표출하고 서로 공감해주는 경험이 흥미로웠고,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실질적인 직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신길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책임지고 있는 진로교사는 지역사회 내 기업, 관공서, 다양한 직업군들의 업무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취지를 공감하고 체험처를 개방해주어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진로성숙도·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책 읽는 안산 / 10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세상을 바꾼 과학

아동



사람은 왜 매일 잠을 잘까?

저자 소피 슈바르츠 / 출판사 다산기획

왜 사람은 매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지, 왜 피곤하면 졸리는지, 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이 잠을 자는지 등 ‘잠’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룬 책이다. 아이들은 마치 책 속의 주인공인 뱀상과 그의 친구들이 실제로 잠을 자면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듯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청소년



조선왕조실록에 숨어있는 과학

저자 이성규 / 출판사 살림FRIENDS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조선왕조실록」 관련 저서 중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최초의 책이다. 딱새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새끼의 크기가 산비둘기만 하다는 내용도 임금에게 보고되고, 발이 더 많이 달린 송아지나 강아지가 태어나도 상세히 보고되었다.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어 그 과학적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성인



우주 레시피

저자 손영중 / 출판사 오르트

수강생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연세대학교의 교양 강의 ‘우주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엮은 책이다. 지구와 태양, 은하와 빅뱅까지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이 책은 어려움 없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주민에게 가훈을 선물하는 김상곤 씨

가훈 필요하면 오세요



지난 30여 년을 한 자리에서 소박하게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가훈을 써 주는 김 상곤 씨(75세, 고잔1동 문화마을 후원회장)를 찾아가 보았다. 고잔동에 위치한 쌀가게 ‘대북쌀농산’에 들어서자 오래된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겹겹이 쌓여있는 쌀들과 갖가지 잡곡들이 가지런히 놓여 손님들을 맞이하였고 벽면 빈 공간은 글씨 연습을 했던 수십 장의 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현재 문화마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 상곤 씨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문화마을 홍보를 위해 가훈을 써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글들이 다양해 가훈으로 꼽을 만한 글을 찾아내고 꾸준한 연습을 하며 하나의 가훈을 완성하다보니,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 갈 때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고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한다. 그 열정으로 국전 입상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호가 보천(寶泉:큰 샘)인 김상곤 씨에게 가훈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글을 부탁드렸더니 서기집당(瑞氣集堂)을 추천해 주셨다. 상서로운 기운이 집에 모인다는 뜻으로 집에 행복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써주신다고 한다. “힘이 닿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고장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집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가훈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장한 체격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김상곤 씨, 푸근하고 인자한 성품에 고잔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토박이 주민으로서 언제나 우뚝 서 있는 고목나무처럼 우리곁을 지켜주리라 기대해본다.

김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기자 _ hanmarus@naver.com

청년유니온 ‘우동모’

떼인 돈도 받아 주는 청년노동조합



‘떼인 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다. 왠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안산에 사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원들의 모임이다. 2010년 서울에 청년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거기에 가입한 안산 조합원들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이 모임의 발단이였다. ‘우리동네모임(우동모)’이란 이름으로 이제 3년차가 된 이 모임은 40여 명의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지역모임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편이다. 이들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주

고 있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준다거나, 노무사를 소개해주는 일들을 무료로 도와준다. 노동관련 상담이나 모임가입은 언제나 환영이다. 정기친목모임은 한 달에 두 번이며, 가끔씩 시외로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노동법 강연이나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캠페인이나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안산모임 ‘우동모’의 모임지기 문지원(29)씨는 “안산청년들이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권리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힘들 때 청년유니온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함께 친구가 되어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우동모’모임지기 문지원(010-9976-4674) 유가희 명예기자 _ 425170@naver.com

멘토링 자원봉사자 오승철 군 이야기

봉사는 베푸는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청소년교육복지센터 ‘누림’을 통해 청년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는 오승철 학생(한국산업기술대 전자공학과4)을 만났다. ‘누림’은 학교부적응·위기 청소년들이 불안한 시기를 잘 극복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도록 돕는다.

승철 군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과 7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나 우리말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구글 번역기와 손짓발짓을 동원한 놀이학습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한국어와 친숙해졌다. 기억니은도 모르던 아이가 마지막 수업 날, “선생님! 청소

다했어요. 오늘 아침에 ○○반찬에 밥 먹고 왔어요.”라며 사력을 다해 이야기하던 그날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승철 군은 지난 여름방학에 라오스와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말았던 시골 냄새가 무척 인상적이었다며 빠삐까초등학교에서의 일주일 이야기를 했다. 전교생이 100여 명 남짓한 초등학교에는 200명의 인파가 이들을 맞았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과 부모님, 마을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오카리나를 배우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던 시간은 흡사 마을축제 같았다고 했다. 태국의 고아원에서는 목사님 혼자 라임 농사를 지어 원생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어 대학생들이 일손이 되어주었다. 고장

난 화장실을 수리하느라 삽으로 땅을 파 정화조를 만들었던 경험은 봉사자들 스스로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이로서 형이나 누나의 조언이 필요하던 시기를 혼자 겪었다는 승철 군은 “봉사는 베푸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멘토링을 통해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닐까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직장에 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잘 나눠 누군가에게 틈을 내고, 그런 틈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n@hanmail.net

안산시의 안전시스템은 ‘초록불’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주민참여 민·관·군 합동 훈련 실시해

지난 10월 18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연구실 밀집지역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이 열렸다. 이번 훈련은 안산시·한강유역환경청·경기테크노파크가 공동주관하고 안산소방서, 육군 제10화생방대대, 상록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반월·시화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 관련업체 근로자 등 17개 기관(단체)에서 800명이 참여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120여 개의 산업연구시설이 입주해 있는 집적단지로서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실험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이다.

이번 훈련은 경기테크노파크 6층 연구실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이 주변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에게 확산되는 상황을, 1단계 상황전파, 2단계 초기 대응(유관기관 인명구조, 사고현장 통제, 긴급구조 활동, 합동대책 회의, 주민대피), 3단계 수습단계(화학물질 탐지, 제독, 현장 수습), 복구(잔류 오염도 조사, 사후복구 활동) 등 4단계로 진행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한 훈련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런 훈련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은 안전사고에 대비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과 17개 기관 단체가 함께 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매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안산시민이 안전한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 *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
- * 독성 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한다.
-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행복예절관,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치러

해마다 한 쌍씩 추진, 우리 문화 알린다



안산시행복예절관은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를 진행함으로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며, 전통 혼례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미리 신청을 해 전통혼례의 주인공이 된 신랑(이성영, 한국), 신부(왕청원, 중국)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 절차에 따라 식을 치렀다. 혼례를 마치고 뜨거운 박수와 신명나는 풍악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부부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신랑 신부의 러브스토리를 들어보았다.

문의 : 행복예절관 (031-475-032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신랑에게- 전통혼례를 치른 소감은?

안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소속감 없이 살아왔는데 안산시에서 준비한 전통혼례를 치르고서는 안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를 몸소 느끼고,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느끼는 등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을 계기로 다른 다문화가정도 이런 기회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신랑에게- 부인 자랑을 한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부터 뒷바라지를 열심히 한 엄마입니다. 중국에서 누렸던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안산으로 들어온 점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마음이 예뻐요. 한국말도 잘하는 편인데 부족하다고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도 이쁘네요.

신부에게- 안산 생활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안산에 들어온 지는 3개월 되었어요. 중국에서 한국말을 배워서 조금은 잘 할 수 있는데 시부모님과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요. 어려운 점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에 자신이 없어 친구 사귀기가 쉽지는 않네요.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썩스러웠지만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행복해요. 외국인이라서 이것저것 배려해주는 것도 많아서 감사해요.

신안산선 드디어 본격 출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0월 중 고시, 2023년 개통



안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新安산선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 지난 9월 30일 ‘新安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10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新安산선은 안산~여의도~서울역 간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성포동으로 이어지는 안산축 노선과, 시흥축 노선을 통해 서울 여의도와 연결되는 1단계 구간 43.6km를 총사업비 3조 3,895억 원을 투입해 민간과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BTO-rs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오는 10월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3년에 개통할 계획이다.新安산선 개통시서울까지 20~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인천발KTX와 연계하여 서남부권역의 교통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의 직접연결로 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팩토리사업 개발여건이 향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71)

10일간의 패션 여행 떠나볼까?

축제와 통 큰 세일이 만나는 패션타운 페스티벌



2016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이 10월 28일 (금)부터 10일간 열린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관하고 안산패션

타운 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주민과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마련되었다. 다양한 문화공연, 그리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매장별 통 큰 할인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28일(금) 오후 6시, 페스티벌의 개막식이 열린다. 식전공연과 대세 걸 그룹 여자친구, 베이비비, 모노싱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매일 저녁 개막식과 폐막식을 제외한 기간 내내 B-BOY, 통기타 가수가 함께하는 7080라이브 콘서트도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6일(일)에는 ‘티브로드와 함께하는 안산시민 노래자랑’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 신청은 11월 6일 낮 12시까지 받는다. 가장

큰 즐거움은 뭐니 뭐니 해도 통 큰 세일이다. 매장별로 30%~80%까지 할인하는 ‘끝장세일’이 열린다고 하니 그동안 찜해두었던 상품들을 골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홍세현 안산패션타운 발전협의회장은 “인근지역 대형아울렛 입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도 알뜰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도록 먹거리며 문화행사 등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말했다. 행사 기간 중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응모권을 지급하는데, 자동차, TV, 냉장고, 전자거 등 뽕뽕한 경품도 기다리고 있다. 기간 내내 임시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된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의회 소식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25일부터 28일까지 안건 26건 심의



안산시의회가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확정했다.

안산시의회가 17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확정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제234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新安산선 수암역 추가설치 건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25건 등 총 26건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는 또 이날 운영위에서 윤석진·김재국 의원을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는 25일 개최하는 제234회 임시회는 짧은 회기에 비해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절초
있는
풍경



안산에 구절초(九節草)가 지천이다.
아홉 마디가 되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 구절초.
옛 수인선 철로를 따라 곱게 피어 사람들을 맞는다.
순수,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말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도 하얗게 만드는 매력 있는 가을꽃이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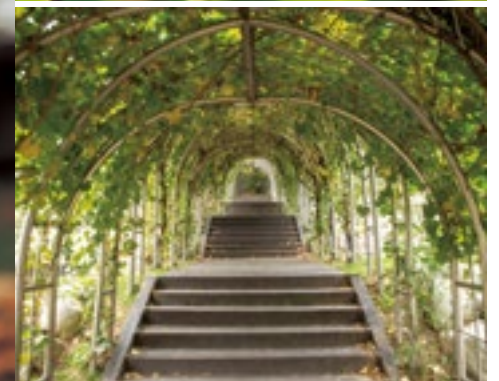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안산

가을
낙엽
소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 옷깃을 여미며 나뭇잎을 쳐다본다. 떨어지는 낙엽에 지난 여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고 했던가?
이 가을 시몬이 되어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들으러 가자.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꿈을 이루는 안산 창조 혁신 경제

“창업 성공의 길은 복잡하고 험난하며 이를 모두 책임지는 CEO의 길은 더욱 외롭고 힘든 길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OECD 34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2위이며 전체 130개국 기준 28위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별 기업가정신지수 패턴에 따라 세 가지 유형 (비즈니스 친화형, 창업국가형, 침체형 / 후발추격형)으로 나뉘며 우리나라는 침체형 / 후발추격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선진국이지만 경기 침체를 겪거나 창업 측면에서 활력을 잃은 국가, 아시아-동유럽 및 남미의 후발추격 국가들이 포함되며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은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가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생존율은 3년 41%, 5년 16%, 10년 8%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7위에 머무른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중국집, 미장원, 편의점 등)은 3년 생존율 60%, 5년 43%, 10년 19.9%이다. 국내 기업 생존율에서 보면, 창업 후 3년~7년 기간인 소위 ‘Death Valley’ 기간 동안 생존하는 기업이 채 2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하여 성공한다는 것은, 최초에 구상한 하나의 제품을 기획·개발·생산·판매하는 과정을 넘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성공리에 기획·개발·생산·판매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관리·거래처 관리·품질 관리 및 세무/법률 제도 등의 관리 시스템도 원활히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창업 성공의 길은 복잡하고 험난하며 이를 모두 책임지는 CEO의 길은 더욱 외롭고 힘든 길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공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확률을 올리

기 위해 많은 공공 기관, 학계 및 민간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과 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9월 안산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캠퍼스, 코트라 사무실과 미래부 산하 실리콘밸리 창업지원센터인 KIC센터를 방문하여 실리콘밸리의 현 상황과 창업환경을 확인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개선점을 논의·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정보, 노하우,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안산시에 필요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학연이 혁신과 융합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와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투자에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런 환경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에도 대표적인 산업생산체계이자 국가산업단지인 안산스마트허브와 이를 둘러싸는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산사이언스밸리(ASV)라는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가 있다. ASV에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인력 약 2,000여 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대형 국가산업단지와 우수 인력을 지닌 첨단 클러스터가 공존하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는 안산시의 창조혁신에 매우 유리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잠재력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투자 환경, 인적 구성 및 지역의 환경이지만, 안산시는 이러한 안산시만의 장점을 가지고 산업 고도화 및 창업 고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관내 우수 대학과 스마트허브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가진 선배님들, ASV의 석박사 인력 및 입주 기업들이 안산시의 귀한 자산이며 향후 안산시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안산시의 산업 성공을 다시 한 번 멋지게 쓸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



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아들의 기특하고 따스한 마음

“그날 밤 아들녀석의 얘기가 머리 속을 맴돌아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저녁식사를 물린 뒤 과일을 깎아 먹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불쑥 “돈 좀 달라”고 했다. 어린녀석이 웬 돈?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아이가 이불보자기 펴듯 이야기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 조립식 헬리콥터 완구를 무척 갖고 싶어했던 친구가 있는데 과학시간에 그걸 사가지고 가서 만들어 보이고 싶어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들녀석은 단짝인 그 친구 때문에 하루종일 마음이 불편했고 자기 용돈을 조금 나눠주고 싶었으나 제녀석도 가진 돈이 없다며 결국 부모인 우리더러 돈 좀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듣고 있던 아내가 “조립식 헬리콥터가 얼마나 하는데?” 하고 묻자 아들은 그게 5만 원이고, 친구는 2만 원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제녀석은 1만 원이 있으니 엄마더러 2만 원을 얻을 계획이라고 했다. 친구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고있는데 아이는 나중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가졌다는 말과 함께. 아내는 아이에게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 쓰는 게 제대로 용돈을 쓸줄 아는거야”라며 돈의 가치에

대해 훈계를 했다. 아내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날 밤 아들녀석의 얘기가 머리 속을 맴돌아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2만 원은 그 때로 아이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갖고 싶은 물건을 바라만 보다가 그냥 돌아와야 했을 아이 친구의 모습이 내내 눈에 밟혔다. 아침에 아들녀석의 손에 2만 원을 쥐어주며 “이건 아빠가 주는 특별 용돈이다. 그러나 그냥 줄 수는 없다. 앞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아빠 구두 닦는다. 알았냐?”고 했다.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덱석 쥐어주면 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까 아빠 구두닦이 알바를 시킨 것이다. 아이는 “넹! 아빠 감사합니다” 라며 덱석 받고 입이 귀에 걸리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제녀석 일도 아닌, 친구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기뻐하는걸 보니 아이가 예쁘게 느껴졌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각박해져 가는 요즘, 친구를 생각하는 아들녀석의 따스한 마음이 고맙고 기특했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꿈이라는 친구가 돈이 모자라 포기해야만 했던 그 실험용 기구를 살수 있게 도와준 아들놈, 기특하고 예쁘다.

김기봉 (상록구 화랑로)



요즘 주민들이 수확기를 맞는 밤과 도토리를 줍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밤과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의 겨울철 먹이입니다. 일부사람들이 장대를 가지고 밤나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다니는 갑골 대동서적 뒷산에는 일부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등산로 입구에 밤이나 도토리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물들의 겨울철 먹이를 위해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산에 있는 열매들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저장 음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본오동 해안로는 벌써 3개월 전에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차선을 막아두고 왜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지 않으면 지금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로 확장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 MTV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도로 개통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 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2016년 9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합동 점검에 따른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이달 10월 중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 시청 건설과



상록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지원센터 옆 공터에서 주택가로 넘어가는 길이 너무 비탈지고 자갈이 많아 다니기 불편합니다. 자갈길도 그렇고 길에 흙이 너무 많이 파여서 불편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청 사회복지과



성포공원을 정비하겠다고 금줄이 쳐져있군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숨통 같은 공원을 정비하는데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은 했나요? 공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지인데 의견 수렴 절차 없는 행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성포공원 정비 사업은 2016년 3월에 1차 주민 설명회를 했고, 설명회 당시 주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4월에 성포공원에서 지역 주민을 모시고 2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 2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포공원 정비사업 설계를 끝내고 지난 9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청 공원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안산시 소셜방송 안산드림TV와 함께할 명예기자 모집

영상 비전문가도 스마트폰 촬영교육 수료 후 안산의 다양한 이야기 홍보

모집인원 10명 접수기간 2016. 10. 31

접수방법 이메일(batv@iansan.net) 또는 공보관실 방문접수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자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취재기사 1부 (최근 3개월 이내 안산관련 소식)

※ 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031-481-3152



예금자보호제도, 이제 직원에게 직접! 설명 받으세요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원!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증권사!

*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

전기요금 할인제도 꼭 신청하세요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할인내용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자' 또는 '손'이 3인 이상 가구)	20% 할인(월 1만2천원 한도)
대가족 할인(주민등록표상 5인가구)	누진1단계 경감 *(월 1만2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누진1단계 경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정액 할인(월 8천원 한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정액 할인(월 4천원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돌봄 차상위자	정액할인(월 2천원 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21.6% / 일반용 20%

심야전력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	심야(간)	심야(을)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31.4%	20%
차상위계층	29.7%	18%

신청문의 고객센터 ☎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 관할지사, 아파트 관리사무소